

“미래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톱100 대학 기반 다질 것”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허브로서 ‘글로벌 Top 100’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준비된 세일즈 총장으로 뛰고 또 뛰어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JBNU Pride를 반드시 만들겠다”

전북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19대 양오봉 총장이 4년간의 공식 임기에 돌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재정 악화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학에 새 바람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Top 10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넉넉한 재정 확보를 위해 발로 뛰고 또 뛰겠다고 역설한 양오봉 총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전북대 제19대 총장에 취임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제19대 전북대 총장으로서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달 20일 총리로 부터 임명장을 전수받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스쳤다. 함께 소통하고 책임지는 총장이 돼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성원해 주신 분들의 뜻을 귀하게 실천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헤아려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한 자세로 정진하겠다.”

◆취임하며 내건 캐치프레이즈에는 어떤 의미 담았나.

-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Top100이다.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지역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글로벌 Top100 전북대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우리대학이 선도해 대한민국의 교육 강국 기틀 마련에 기여하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악화 등 대학이 어렵다고들 한다. 현재 전북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겹치며 그야말로 대학의 존재까지 염려해야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당장 학생 충원부터 고민해야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오래지 않아 거점국립대학에도 이러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 자명하다. 이

러한 위기를 교육과 연구, 재정 등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통해 기회로 만들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일즈 총장’을 표방하셨다. 어떤 의미인가?

- “어려운 대학 재정을 살찌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북대는 현재 2009년 이후로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됐고, 신입생 수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교육교부금의 대학 사용 제한 등으로 어려운 재정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구비만 해도 2021년 기준 서울대가 5723억 원, 비슷한 상황의 경북대가 1621억 원인데 비해 전북대는 1340억 원에 그치고 있다. 발전기금 역시 서울대 832억 원, 경북대 46억 원 등인데 전북대는 35억 원 수준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재정이 취약하면 교육과 연구 분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필요한 정책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때문에 총장이 발로 뛰고 또 뛰어야 한다.”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 “현재 학생처에 취업지원을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나 이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대학 본부에 취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취업부총장제를 신설하려 한다. 취업부총장-취업처장-취업부처장으로 연계되는 제도를 확립하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 취업 지원을 위한 단대별 취업 라운지도 만들겠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AI 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 인턴제도 신설하겠다.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졸업생을 대상으로도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현장 연계형 인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 30%인 지역인재할당제를 50%로 확대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대학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연구다.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은.

- “미래사회를 대비한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수월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이후 20%가량 삭감된 연구지원금을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애로가 있었던 연구년 추진도 기간과 시점을 총량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총 3년을 보장하는 ‘연구년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제안서 준비와 편집을 위한 기금 지원과 종이 스마트 행정 처리 시스템 정착, 전일제 대학원생 학비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 “연구하고 가르칠 맛이 나는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전북대, 세계 인재 모여드는 허브 역할 분야별 특성화 점진적 목표 교육개혁 선도 대학재정 확보 위한 세일즈총장 표방 다짐 학생 취업 지원 강화 ‘취업부총장제’ 신설 ‘AI 선배’ 멘토링 시스템 도입-취업 연계형 인턴제도 신설 등 학생 취업 지원 강화 연구경쟁력 강화 ‘연구년 총량제’ 시행 국립대 육성-RISE 사업 등 유치 총력 전북 14개 지역발전 ‘JBNU연구원’ 설립

”

여건과 교수님들이 즐겁게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국립대 육성사업과 RISE사업, 글로벌대학 사업 등의 유치를 최선을 다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발전을 견인하는 JBNU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8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4년간 대학발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지역연구원 설립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북대를 만들어 가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리대학이 선도해서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전북대학교가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무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군산** 자립도시

2023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2023. 4. 9.(일) 07:30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주최 | KAAF 대한육상연맹 군산시 | 주관 | JAAF 전라북도육상연맹 GAAF 군산시육상연맹 | 후원 |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시체육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마라톤 주로 구간별 교통통제

2023. 4. 9.(일) 06:00~13:00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GUNSAN CITY